

세월호참사 4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추모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진도군과 지역 시민단체 등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추모문화제 등을 마련했다.

진도군은 오는 16일 진도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희생자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진도군과 세월호참사진도군법률민대책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추모식은

진도 씨갭과 추모영상 상영, 4주기 세월호 참사 추모식, 국민안전 체험행사 등이 열린다.

체육관 일원에서는 국민안전 체험행사는 재난안전교육(소화기·방독면·완강기·화재대피 요령), 교통안전 예방·교육(안전벨트 착용 시뮬레이터 체험·3D교통안전 애니메이션 시청), 응급처치(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심폐소생술 교육), 지진체험(VR 시뮬레이

### ‘세월호 4주기’ 추모 분위기 고조

희생자 추모식·토론회·문화제 등 행사

터 체험, 재난안전 사진·포스터 전시회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 팽목항에서는 원불교 미사와 법회 등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의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목포에서도 다음달 7일까지 ‘기억하라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전시와 공연·토론회 등이 잇따라 펼쳐진다. 유족들이 참여한 압화와 편지를 전시하는 특별기

획전 ‘너희를 담은 시간’이 오거리문화센터에서 21일까지 열리며, 22일에는 목포신항에서 이어진다.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연극공연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가 13일 오후 극단새결에서 열린다. 세월호목포 실천회와 한국사회화학회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월호와 촛불,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란 주제의 토론회와 기억문화제, 다짐대회, 영화상영 등이 이어진

다.

광주에서는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과 광주시민사회단체 등이 16일 5·18민주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기억하라.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추모제는 ‘예술인행동’을 시작으로 추모순례, 희생자 304명을 기리기 위해 신발 304켤레를 모으는 퍼포먼스가 열린다.

/길용현 기자

## 자동차 용역비위 공무원 4명 수사의뢰

시 감사위 “법률자문 법인 선정입찰 부당 개입”  
수사 이후 징계...그린카 감사결과 차기회의 논의

광주시 친환경자동차사업 유치관련 법률자문 용역을 진행하면서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시 출연기관장과 공무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형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본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관련공무원 등 4명을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민선 6기 최대 현안으로 친환경자동차 기업유치를 추진 중인 광주시는 국내

완성차 대기업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완성차 라인(연산 10만대 규모) 및 부품 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월 민관합작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 용역 1억7,000만원 입찰을 진행했다.

시 감사위는 이 과정에서 진흥원과 시 관계자 등이 사전에 특정 법무법인을 내정하고, 셀프 제안서 작성, 평가기준 사전조율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특정 법무법인과 본계약 체결을 보류토록 조치하고, 법

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 개입한 관련공무원들을 입찰방해(형법 제315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관련 공무원들은 “대기업과 협상진행 과정에서 사전 법률자문을 받았고, 용역과제를 고려할 때 대형 법무법인 참여가 불가피했다”며 “관련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법률자문 용역은 부가적인 내용에 불과한데도 수사까지 받게 돼 투자유치가 물거품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회의과정에서도 수사의뢰를 놓고 위원간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개시의 실마리가 됐던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부당사용과 관련해 감사위는 “기부금의 최종사용자가 민간인으

로 확인이 어려웠다”며 관련부서(자동차사업과)에서 감사·감독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기부금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관련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까지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는 관련자들에게 대한 징계는 수사결과 이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 추진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에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시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특정사안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대법 “휴대전화 요금원가 공개하라”

2005~2011년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 대상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 등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서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통신비 산정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

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정보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다 소수 포함됐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 투표소 ‘인권 모니터단’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체형 등 실시

광주시는 6·13지방선거에 대비해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12일 시청 1층 시민소 행복회의실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단은 시민인권실천단 ‘광주인사이트’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됐다.

‘투표소 인권모니터링’은 장애인 등 사회적 인권약자들이 투표소에서 느낄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점검해 잠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와 선거관리위원회 협업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은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하는데 문제가 예상된 40여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출입문 너비, 장애인 화장실 여부 등 접근성과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후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철 기자



사망사고 예방 결의대회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 관계자들과 함께 구호 현수막을 들고 안전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 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대폭 확대

1,265개 마을서 시행...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전남도는 12일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지난해보다 253개 마을이 늘어난 1,265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은 농산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 등 농번기철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로 연간 25일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급식 대상은 마을회관 등에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과 가족 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급식시설과 조리인력이 부족해 참여하지 못한 마을도 반찬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순천·나주·고흥·해남 등 9개 시·군 253개 마을에서 15일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마을 주민간 친목도모, 여성농업인 취사부담 경감 등 농번기 효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음식출장 행사 25년 전통”  
**파티외식산업**

집순전지, 팔순전지, 아외결혼식, 성당교회 결혼식 전문업체 / 시내, 시외 출장 뷔페 전문

음식물 고객 배상 화재보험 10억원 가입업체

단체도시락 제조 납품, 단체식사 병행 / 기업체 / 학교 구내식당 - 위생경영, 위생급식

\*식탁 의자, 화관, 질순상차림, 케익, 프랑카드 서비스 등 \*행사장비 지원 (렌트 사진, 비디오, 조명 등 가능함)

전문 파티 플래너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무료상담전화 080-226-0085 / 010-4601-3222

\*소량이라도 약속한 시간전까지 배달납품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경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6만원**  
시외 기타외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8만원~~ - 급매 8만원 (일시불 완불조건)
- 문의. 010-3605-5000

**자치평론**  
| 自 | 治 | 評 | 論 |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전남매일 월간 자치평론  
구독문의 062) 720-1006